

‘올해도 모두의 안전 위해 땀입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한 경자년(庚子年) 한 해가 저물고,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위축되고 지역경제는 심각히 침체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익산소방서는 지난 한 해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빈틈없이 시민의 안전 수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제39대 익산소방서장으로 취임한 전미희 서장은 전라북도 최초 여성소방서장의 시대를 열고, 1985년도 입문해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전북소방본부 상황2팀장,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하며, 취임 후 익산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아울러 익산소방서는 2개과, 1단, 8팀, 7개의 안전센터 및 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에서도 최대 규모의 소방공무원 316명, 소방차량 46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화재 예방과 수급 역할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로 722명을 확보하고 있어 현장활동 보조역할을 수행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종 재난사고 시 우월한 소방력 투입으로 총력대응해 조기에 재난을 억제하고 있다.



전미희 소방서장

지난해 성과

익산소방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이송업무 지원, 신규구급차 보급(광성·함라), 소형인명구조사다리차 배치(함열) 등 소방인프라 구축과 재난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 설치(252대), 시기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으로 익산시 안전문화 확산에 일조했다. 또한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북도 1위, 2020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북도 1위 달성 등 내실있는 소방정책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안전이 되도록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실현했으며, 이 외에도 제32회 전라북도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2위 '우수상', 2020년 전북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 2위 '우수상', 제14회 119청소년 안전뉴스 경진대회 2위, '우수상', 각종 소방관련 대회에서 수상을 거두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다.

올해 추진 방향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 한 발짝 성큼’... 남중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추진 남중119안전센터는 가장 오래된 청사로 익산시청의 청사 신축 이전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에 따라 지속적인 대시민 소방안전 서비스를 유지하고자 청사를 신축, 이전을 추진한다. 남중센터는 지리적으로 구도심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3개소, 익산역·종합사



화재 진압과 함께 구조에 나선 119구조대

코로나19 이송업무 지원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등 지난해 지역 안전문화 확산 일조

올해 남중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전북도·익산시 예산 확보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에 기초소방시설 확대 보급 여산119지역대에 구급차 신규 배치 대형재난 대비 다중출동체계 확립

지하는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힘을 보탠다. 덧붙여 2020년 12월 기준 익산 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61.4%에서 올해에는 67.3%까지 끌어올려 주택화재 감소에 기여하고, 내년까지 장애인 가구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를 향해 나아간다.

‘도시지역 구급차 배치, 구급공백 사각지대 해소’... 현장 맞춤형 양질의 구급 서비스 제공 농촌 지역 등 구급 사각지대 해소와 중증환자 생존률 향상을 목표로 여산 119지역대에 구급차를 올해 상반기 중 신규 배치한다. 구급차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식 산소소생기, 산소포화측정기 등 첨단 최신 의료장비와 적재함이 갖춰져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에 최적화되어 대국민 친화적 구급서비스 제공과 구급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구급대원 전문교육 강화, 다수인명피해 발생 등 대형재난에 대비해 맞춤형 다중



신속하게 움직이는 119 구급차



코로나19 환자 이송



화재안전 정보 조사



코로나19 방역 활동

출동체계 확립으로 구급 골든타임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기초소방시설 보급

익산소방서는 신축년(辛丑年)에도 재난에 대해 ‘총력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호천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평등한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방행정과 소방서비스 제공에 매진할 것이라며, 끝으로 화재 예방은 ‘너 아닌 나부터’ 라는 의식을 가지고 새해에는 좀 더 화재 예방에 대해 경각심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